



## 신임 서울대 총장 李基俊 박사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총회의실

일자 : 1월 7일 오후 6시

# “21세기는 전문가가 사회지도층 이뤄야”

최근 서울대 총장에 취임한 이기준박사는 “21세기의 사회지도층은 다재다능한 사람보다 전문가로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경영도 자연과학도들이 그 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와 회견에서 이총장은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기술로 망하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총장은 또 “교수채용때도 현장경력자를 우대하는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대 총장에 취임하신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제가 그동안 애독해 온 잡지입니다. 축하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957년도에 화공과에 입학하면서이니까, 벌써 42년이나 된 셈입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총장에 취임했는데, 요즈음은 날이 갈

수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대학은 가치창출 우선해야

■ 총장님께서서는 자연과학 그것도 기술에 속하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 총장은 인문과학을 한 분이 적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 인지는 몰라도 자연과학을 한 분은 폭넓은 식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에는 인문과학이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폭넓은 식견을 갖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될 면도 있겠으나, 저는 편견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뚜렷한 전공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리고 자연과학도는 대부분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자기의 전공을 심화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사람 (generalist)보다 전문가(specialist)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는 이러한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는 산업경쟁력에 기초한 풍요로운 사회이면서, 동시에 사회 및 경제의 제반 질서가 공정성과 합리성에 의해 확고히 지배되는 투명한 선

진사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연과학도가 우리 국가경영의 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 대학의 사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특히 요즘과 같이 시대의 격변기에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또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짚어질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경쟁, 무한경쟁이라 불리는 이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 서울대학교의 교육개혁은 모든 대학 뿐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육개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단계 이상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다소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재임기간 중 이루어 보겠습니다. 적어도 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국가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겠지요. 저는 이제 대학 안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한 가치창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국가의 희망은 기술에 달려

■ 총장님께서서는 대학이 사회에, 특히 이공대학이 산업계에 주는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를 맞아 대학

특히 이공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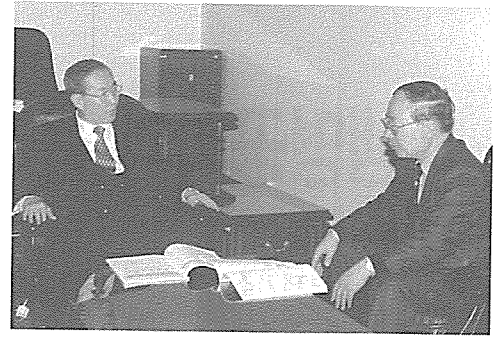
이공계 대학은 사실 IMF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MF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요. 세계사를 기술발전의 관점에서 논한 마키노 노무로는 그의 저서 「제조업은 영원하다」에서 한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기술 때문에 망한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까.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일은 국가 발전의 기본입니다.

### 좋은 연구성과로 IMF 극복을

■ IMF사태로 해서 이공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최근에 이르러 이공계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체로부터의 연구비는 대폭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연구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입니다. 연구활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우리 과학기술인 모두의 몫이지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학이 IMF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 각자가 산업에 좀더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해야겠지요.

■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이 국가가 당면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더러



또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대학에서의 연구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직접 이바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문제를 직접 알아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진들 대부분은 산업체에서의 현장경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겉돌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도 교수 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교수채용 때 현장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식 등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장님께서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총합체인 과총이 앞으로 특히 관심갖고 해야 할 일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과총은 그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의 총합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수한 인재가 계속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되어야 국가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조직적인 활동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사회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를 공경하고 우대하는 사회로,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